

사랑의열매

Issue 139 \ November 2018

11

젊은 기부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년퇴임 선임부장 3총사
웃고 울고 어느새 20년
빨간 열매 그리울 겁니다



기억

중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혜화동 성당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녀님을 따라 '외부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흰색 페인트로 칠해진 한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시립병원에 누워 있는 무연고 노숙인과 말벗을 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강당처럼 생긴 커다란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견디기 힘든 냄새가 온몸을 훑 덮쳤습니다.

놀란 마음을 누르며 길게 늘어선 침대에 누워 있는 어느 한 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침대라기보다 딱딱한 널판지 위에 흰색 시트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모로 누운 초로의 남성이 쾅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춤하다가 간신히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간간이 대화를 이어갔지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 진동하던 역한 냄새, 토하면 안 된다는 일념만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돌아와서도 그 냄새의 기억은 오래도록 지속되었고, 그날 이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땅에서 태어나 살면서 왜 이렇게 다른 환경에 놓일까?

이다음에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누군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본다면

결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발걸음이 시민사회단체를 거쳐 사랑의열매까지 이르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날이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따뜻한 온기가 절실한 때입니다.

목차



08



First Person

사랑의열매 정년퇴임 앞둔 선임부장 3총사

14



사랑의열매 창립 20년

홍보대사들의 축하 메시지

18



특집

20개의 나눔으로 본 사랑의열매

24



화제

19세 아너·18세 나눔리더... 젊은 기부자가 늘고 있다

28



희망스토리

어르신 찾아 마을로... 행복 버스가 뚝뚝뚝

30



착한기업

BNK경남은행

36



착한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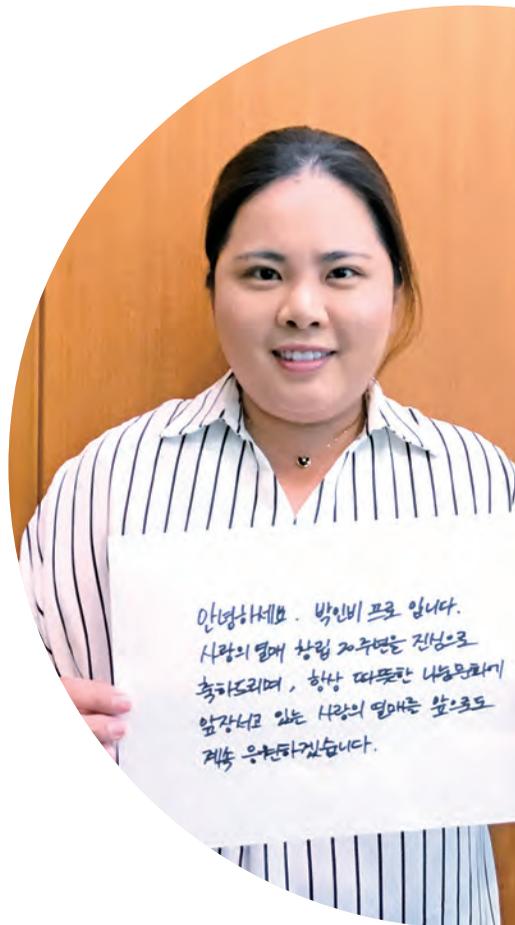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38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

강원 정선



Cover



사랑의열매 설립과 함께 시작해 20년을 동행하고 명예롭게 퇴임을 맞는 전홍운 선임부장, 방성수 선임부장, 최기룡 선임부장(오른쪽부터). 이들은 사랑의열매의 살아 있는 역사다.



사랑의 열매 20년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42

The Page

나눔은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든다

44

나눔 리포트

나눔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나눔연구소 블로그

46

나의 나눔 이야기

수익금 기부하고 사랑을 얻다

47

사랑의열매 뉴스

중앙회·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7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58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39 2018 / 11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8년 11월 / 통권 139호

발행처 사랑의열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 회관 5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대외홍보본부

구독안내 tel 02-6262-3000 fax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편집디자인 조선뉴스프레스 tel 02-724-6783

인쇄 (주)타라TPS tel 031-939-2049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자료는 사랑의열매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열매가
2030에게 전하는
나눔과 위로의 메시지

로닥 로닥 로크콘서트

2018.11.27 [화] 늦은 7시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화암홀

SPECIAL POINT

본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주 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켓예매 인터파크, 온오프믹스
(예매페이지 오픈일정은 11월 1주 내 공식 페이스북에 공지예정)
공연문의 사랑의열매 대외홍보본부 / 02-6262-3033

위로 #1. 하상욱

2030은 하상욱을 읽는다
하상욱을 향한 '격한 공감'의 이유

위로 #2. BJ씨님

솔직하게, 멋지게!
BJ씨님의 거침없는 마이웨이

나눔 #1. 이연복

파란만장 이연복셰프의 성공
그리고 2030에게 전하는 위로

나눔 #2. 박수홍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박수홍의
나눔이야기



20년의 사랑!

어렵던 시절,
사랑의열매 장학금으로
다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보내준 당신처럼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받은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사랑은 그렇게 계속됩니다.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배우 채수빈님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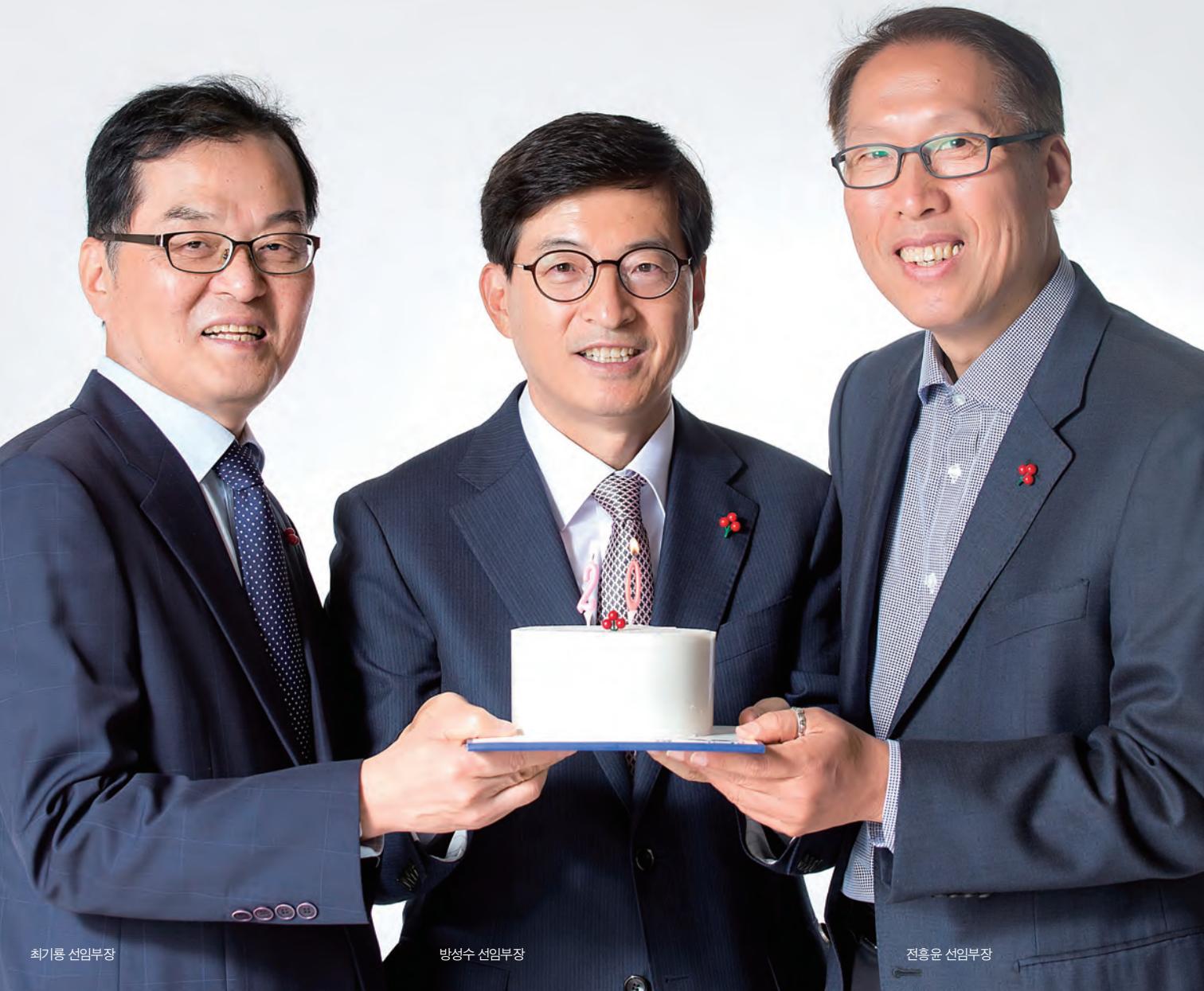
사랑의열매 검색하고
20주년 폴스토리를 확인하세요!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사랑의열매 정년퇴임 앞둔 선임부장 3총사

벌써 20년이라니~ 빨간 열매 그리울 겁니다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제정되고 1998년 11월 사랑의열매가 설립됐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개척자의 정신으로 사랑의열매를 20년간 이끌어온 레전드들이 있다. 사랑의열매와 시작을 함께했던 방성수 선임부장과 전홍윤 선임부장, 사랑의열매가 가장 어려울 때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최기룡 선임부장. 이들은 사랑의열매의 살아 있는 역사다. 나눔의 가치에 일생을 걸고 달려온 2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미래에 사랑의열매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물었다.



최기룡 선임부장

방성수 선임부장

전홍윤 선임부장

20년을 사랑의열매와 함께했다. 올해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만감이 교차할 것 같다. 소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방성수 선임부장(이하 방) : 올해가 입사 20년 되는 해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성년이 되는 해다. 20년 전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돌아보면 모든 힘든 과정을 사랑의열매 가족들과 함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

전흥운 선임부장(이하 전) : 돌이켜보니 그때는 모든 게 처음이었다. 어색하고 미숙했지만 사랑의열매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배우며 만들어 갔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 보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 20년이라니 벌써 그렇게 됐나 싶다.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몸담았던 사랑의열매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필요한 일을 하는 기관으로 성장했고, 그 일에 우리가 일조를 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있다.

최기룡 선임부장(이하 최) : 다른 분들과 달리 입사를 늦게 해 근무한 지 10년이 됐다. 사랑의열매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입사를 해서 어려움이 많았다. 사랑의열매의 존재 위기라고 하는 그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 <끝이 좋으면 다 좋다(All's Well That Ends Well)>라는 작품이 있다. 과정은 어려웠지만 끝이 좋으니 보람이 있다.

사랑의열매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

방 : 사랑의열매에 들어오기 전 경북도청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업무가 신설부서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1997년 공동모금회법이 생기면서 경북에도 단체를 설립해야 했다. 제 업무이다 보니 사랑의열매 설립에 관여를 하게 됐다. 그런데 평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사랑의열매에 매력을 느꼈다. 고민이 됐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지만 그래도 뭔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공무원 생활 10년 했으니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사직서를 내고 사랑의열매에 갔더니 첫 달 급여가 평소의 1/3 이하였다. 조건만 보면 무모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정말 하고 싶었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시작했다.

전 : 원래 장애인단체에서 일을 했다. 서울 생활이 힘들어 전주에 내려가 있을 때 지인이 도움을 요청해 국회에서 일을 하게 됐다. 당시 국회에서 공동모금회법을 발의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사랑의열매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다. 그렇게 지원을 하게 돼 5명으로 시작한 중앙회 창립멤버가 됐다. 그런데 이곳에서 20년을 있게 될 줄 몰랐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판단과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최 : 두 분 고생 많이 했겠다. 저는 《부산일보》 기자였다. 당시 부산일보사 사장이 부산 사랑의열매 회장을 맡고 있었고 사무실도 부산일보사 건물에 있었으니 오가며 자주 보았다. 《부산일보》 연재물 중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사랑의 징검다리’ 코너를 맡아 진행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그러다 좋은 기회에 추천을 받게 됐고, 마지막으로 사회에 봉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입사하게 됐다.

설립 당시 사랑의열매는 어떤 모습이었나?

방 : 초창기 사랑의열매는 중앙과 지방이 분리된 독립채산제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지방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처음엔 3명에서 철제책상 3개 가지고 남의 집 더부살이로 시작했다. 10월 1일자로 설립되고 2달 만인 12월 1일 연말모금을 시작했는데 사람이 있어야 모금을 할 것 아닌가.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난다.

전 : 전 12월 8일에 입사를 했는데 사무총장님 포함해 5명이 있었다. 들어오자마자 연말모금이 시작했으니 정신이 없었다. 첫 모금캠페인을 방송사와 함께 명동에서 진행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따라다니며 배우기에 바빴다. 생생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 기부문화의 극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것이 삼성의 기부였다. 당시 100억 원을 기부해 기업의 기부금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계기가 됐다. 삼성에서 성금을 전달하러 왔는데 현장에서 100억 원짜리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넸다.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를 전달해 깜짝 놀랐다. 평생 처음 본 100억 원짜리 수표를 손에 들고 ‘0’이 몇 개 있는지 세어보기까지 했다.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사람들이 있나?

방 : 경북 사랑의열매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성공시켰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난치병 어린이 돕기 성금'을 진행한 것이다. 전 이 사업에 사활을 걸었다. 2001년에 시작됐는데 당시 가정에 난치병 어린이가 있으면 그 가정은 파산했다. 치료비가 억 단위로 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돕고, 선생님이 제자를 돕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 성금'을 기획해 경북교육청 교육감을 찾아갔다. 의미 있는 성금이니 함께 진행하자고 설득했지만 두 번을 거절당했다. 그리고 세 번째 찾아가 천신만고 끝에 설득해 시작하게 됐다. 이 성금으로 한 해 100명 이상의 생명을 건졌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있더라도 병원비를 지원했다. 최고 2억 원까지 지원된 사례도 있다. 이를 계기로 경북교육청이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교육청 사상 처음이었다.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지금도 경북 사랑의열매에서는 큰 사업 중 하나다.

최 : 《부산일보》에 근무할 때 '사랑의 징검다리'라는 코너를 진행했다. 매주 어려운 분들의 사연을 게재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사랑의열매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취재를 해 소개하는 것인데 열정을 갖고 진행했던 기억이 있다. 이 코너가 나중에 방송으로 확대됐다. 사랑의열매 입사 후에도 이 코너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지금까지 15년 동안 700건이 넘는 사연이 소개됐다. 이를 통해 약 26억 원의 성금이 모였다. 그리고 약 15만여 명의 시민들이 기부에 동참했다.

전 : 초반 10년을 중앙회에서 근무했다.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정책적인 일을 많이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사랑의열매가 아니면 쉽지 않았겠구나 하는 일이 있다. 당시 정부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미신고 복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신고 시설로 전환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미인가 시설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복지시설에서 설립 신고를 하면 정부의 규제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였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러던 중에 청와대에서 미인가 시설 파악에 대한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 일이 잘 풀리려는지 사랑의열매에서 겨울을 맞아 복지시설의 월동난방비 지원을 위해

신청을 받고 있었다. 이 사업에 미신고 복지시설 수천 곳이 신청서를 낸 것이다. 그렇게 미인가 복지시설 대부분이 처음 드러나게 됐다. 정부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지원을 했다. 사랑의열매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직장인이려면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고 하지 않나. 근무하면서 언제가 가장 큰 위기였나?

방 : 개인적인 일로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일을 말한다면 끝이 없다(웃음). 그러나 우리에게 2010년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 생활을 접고 와서 열정을 다해 일했던 10년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상실감이 컸다. 모든 사랑의열매 직원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과연 사랑의열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정도로 타락하고 염치가 없는 조직이었나?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것은 사랑의열매를 봉사단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면서 사랑의열매가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다. 많은 분이 웃을 벗었다. 이때가 가장 큰 위기였다.

전 : 당시 근무했던 분들은 동일한 마음일 것이다. 가장 큰 위기였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사랑의열매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외부에서 도움을 주시는 어떤 위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랑의열매에 대해 국민들은 성직자 이상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알았다. 정치적인 이유가 컸지만 사건은 벌어졌다. 당시 직원들은 웃을 벗는 한이 있어도 조직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했다. 전체 직원의 3/4 정도가 징계를 받을 정도였으니 내상이 깊었다. 전례가 없는 혹독한 채찍질이었다.

최 : 당시 집행부들이 모두 사퇴를 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다.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며 정년을 55세로 낮추려 했다. 직원투표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당시 우리가 시범케이스로 대기발령자 명단에 올랐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를 독수리오형제라고 불렀는데 중앙회에서 보직 없이 5개월 정도 대기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함께 근무했던 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난 그때 처음 서울 근무를 했다(웃음).



“공무원 하다가 사랑의열매에 갔더니 첫달 급여가 평소의 1/3 이하였다. 조건만 보면 무모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정말 하고 싶었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시작했다”

- 방성수 선임부장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몸담았던 사랑의열매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필요한 일을 하는 기관으로 성장했고 그 일에 우리가 일조를 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있다”

- 전홍운 선임부장



“어렸을 때부터 나눔을 배우고 자라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금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나눔교육으로 미래 기부자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씨 뿌리는 사랑의열매가 되길 바라”

- 최기룡 선임부장



사랑의열매는 지난 9월 18일 2018년도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연수 중간평가회를 가졌다. 앞줄 왼쪽부터 연수에 참가한 전홍운 선임부장, 방성수 선임부장, 정진옥 선임부장, 최기룡 선임부장. 율해 퇴임하는 정진옥 선임부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은 개인사정으로 특별 좌담회 참석을 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정진옥 선임부장은 중앙회 기획관리본부장, 사무총장 직무대행, 배분사업본부장, 경기·충남·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수도권 나눔교육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 반성수 선임부장

1998년 10월 민세해 감독
사람의열매 설립에 참여했다.
경북, 부산, 대구, 울산
사람의열매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세종사람의열매
설립 준비 총괄단장을
지냈다.

· 전홍운 선임부장

1998년 12월 민사환
중앙회 창립멤버다. 중앙회
홍포팀장과 모금지원부장,
경북과 인천 사람의열매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호남나눔교육센터장을
지냈다.

· 최기룡 선임부장

《부산일보》기자로 활동하다
2008년 입사했다. 울산
사람의열매 사무처장과
중앙회 기획조정실
책임부장을 거쳐
영남나눔교육센터장을
지냈다.

사랑의열매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전 : 2010년 사건 이후 새로운 집행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모금액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모금액이 늘어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실제로 모금액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기부는 농사와 같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것이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맺으려 하니 어려웠던 것이다. 가시적 성과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한 방향으로만 달려왔다.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명함을 건네면 '사랑의열매 참 좋은 일 하시네요'라고 인사한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나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사랑의열매가 목표액 달성만을 위해 노력하는 것같이 비쳐 아쉽다. 앞으로는 사랑의열매가 복지사각지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고민하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 : 2013년 영남나눔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나눔교육을 진행하면서 왜 아이들에게 나눔교육이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됐다. 나눔교육은 어린이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진행한다. 그런데 나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이 잘 양육되어야 하고 이들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산시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산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눔교육에 필요한 강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눔교육의 중요성을 지자체와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 지원을 이끌어 낸다면 가장 바람직한 나눔교육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산시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방 : 사랑의열매는 지금 정체성의 위기인 것 같다. 성과 중심의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국민이 모아준 성금을 전하는 전달자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성금을 전하는 기계적인 전달 조직이 아니라 의미를 담아 전달해야 한다. 지난 20년을 기계적 전달만 해왔다면 앞으로는 사랑의열매가 존재하는 목적에 부합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며 보다 질적인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눔교육센터도 권역별이 아닌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눔의 씨를 뿌려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나눔을 배우고 자리하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금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나눔교육으로 미래 기부자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씨 뿌리는 사랑의열매가 되길 바란다.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방 : 우리에게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400여 명의 직원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더 발전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전 : 직장생활 하면서 큰 성과를 내는 것보다 큰 과오 없이 마치는 것이 더 어렵다. 사랑의열매 직원들은 직장인의 마인드가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의 설립목적에 맞게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후배들이 되기를 바란다.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길 바란다.

끝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방 : 처음 사랑의열매를 설립할 때 방향을 잘 잡아주고 이끌어 주었던 고 강영훈 초대회장께 감사드립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기부금을 전해준 수많은 키타리아저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전 : 사랑의열매의 발전을 위해 외부에서 도움을 주신 위원들이 20년 동안 5,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많은 분이 내일처럼 도와주셔서 지금의 사랑의열매가 있는 것이다. 감사드립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절망 속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빨간 사랑의열매를 보고 '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걸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말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랑의열매, 가슴 뛰는 말이다.

최 : 기부자들, 직원들, 감사한 분들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굳이 한 명을 꼽는다면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게 해준 김종렬 전 부산 사랑의열매 회장께 감사드립니다. 인생 후반기에 사랑의열매에서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방 : 잊은 게 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공무원 생활 그만두고 얇은 월급봉투를 가지고 왔을 때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20년을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따져 묻지 않고 믿고 따라와 준 아내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20년 동안 함께 근무한 직원이 100여 명이 넘더라. 이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무사히 퇴직할 수 없었다. 무탈하게 퇴직할 수 있게 도와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인비입니다.
 사랑의열매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따뜻한 나눔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사랑의열매를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Handwritten signature of Park In-bi
 박인비



창립 20주년
 축하합니다!
 행복찬 세상
 만들어 주세요!!

Handwritten signature of Lee Byung-uk
 이병욱

받은 사랑 나누는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회 곳곳에서 나눔 문화 전파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들이 창립 20주년 기념 축하메시지를
 친필로 전해왔다.



사랑의 열매

사회 복지 공헌. 모금하

창립 20 주년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Handwritten signature of Kim Su-bin
 김수빈

Handwritten signature of Lee Byung-uk
 이병욱

사랑의 열매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의 열매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의 도움이 되어드는 사랑의 열매
 사랑합니다.♡



Handwritten signature of Lee Bong-juk
 2015.11.15
 나라사랑
 이봉죽



7. 사랑의 열매 20
 기념 축하
 20주년 축하드립니다.

Handwritten signature of Lee Bong-juk
 이봉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받은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NC 다이노스 박민우

(Handwritten signature)

사랑의 열매로 어려운 이웃들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웃들 곁에서 따뜻한 온정을 내어주시기 바라며
 저 역시 그와 따뜻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C 다이노스 구창민

(Handwritten signature)
NC 59



사랑의 열매 *(with heart icon)*



(Large handwritten signature)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를
 20주년 축하하며
 전제함

나눔 열정을 선도하는
 '사랑의 열매'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andwritten signature)
10.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살리는 일입니다!
 소외되고 아픈이들은 우리 애쓰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여러분 의지로
 존경합니다!

나눔으로 파이팅!
 2018. 10.
 김보성 원장.



사랑의 열매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00 응원하겠습니다.



(Handwritten signature)
2018. 10. 19.
김이영

(Handwritten signature)
김하영
~^^~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8. 10월 10일 주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사랑의 열매 2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담받게서 주신
건강한 평안과 노래하는 재능으로
이웃과 나누며 넉넉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가수 현숙으로 감사합니다



2018. 10
부담받게서 감사합니다
가수 현숙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

Handwritten signature
울산현대 축구단 김도훈



20주년을 축하합니다.



Handwritten signature

이근호

Handwritten signature
18. 10
채시라



20주년을 축하합니다



Handwritten signature

울산 현대 축구단 박주호

Handwritten signature in the top left corner.



사랑의 열매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따뜻한 온정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바랍니다!
With Love

언제나 희망이 되는 사랑의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임동



Handwritten signature with a heart symbol and the text: 사랑의 열매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
경립 20주년
어려운 여섯과
쪽~
2018. 10. 24



김진경

김영미

김성영

사랑의 열매 20주년 완전 많이 축하드립니다.

Handwritten signature.



김은하

김은하

바삼민

경북 체육회 여자 권링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여자 권링팀!

대한민국 대표 기부, 아너·유산기부·착한가게·천원의 나눔...

강산이 두 번 바뀌어도 나눔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길고도 낯선(?)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첫선을 보인 지 어느덧 20년의 시간이 지났다. 전 국민의 나눔과 참여를 통해 삶과 사람,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지난 20년, 이제 ‘사랑의열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눔의 상징으로 성장했다. 일터와 가정,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나눔을 배우고 또 실천했던 ‘나와 가족과 이웃’이 만들어 낸 20년. 그 진하고 또 따뜻한 나눔과 참여의 여정을 20개의 키워드로 정리해 본다.

1

‘사랑의열매’

대한민국 나눔의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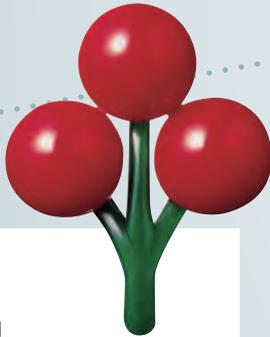
1960년대 수재의연금 모금에 처음 등장한 ‘사랑의열매’는 1998년 공동모금회 설립과 함께 이웃돕기캠페인을 상징하는 공식 브랜드가 됐고 2001년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2003년 2월 산림청은 “빨간 열매는 겨울철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의 상징인 ‘사랑의열매’를 닮았다”며 ‘백당나무’를 이달의 나무로 선정했다. 2009년에는 연말캠페인 출범식에 스와로브스키에서 붉은색 크리스털과 은장식을 한 한정판 ‘사랑의열매’를 제작해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랑의열매 출범 이후 ‘사랑의열매’를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을 신청했으나 등록을 불허(이후 등록 승인)했다. 이는 ‘사랑의열매’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례였다.

2

‘아너 소사이어티’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너 소사이어티’는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된 개인고액기부 프로그램이다. 성숙한 기부문화를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개인기부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미국의 ‘토크빌 소사이어티’를 참고해 2007년 12월 출범했으나 6개월간 참여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2008년 5월 남한봉 유닉스코리아 대표가 1호 기부자로 참여하면서 지역별 클럽형 모임, 가족 아너 및 여성 아너, 고인을 추모하는 사후 가입 등 한국적 정서를 반영한 다양한 참여 방법으로 출범 11년 만에 1,900명을 넘어섰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이후 타 기관에서 유사한 고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본고장인 미국에 역수출되어 재미교포들의 참여가 이어지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천원의 행복, 천원의 나눔

복권으로 만드는 행복세상

사랑의열매에서 2002년 안정적인 배분재원 확보를 위해 시작한 인터넷 복권 '엔젤로또'가 법 개정 후 온라인 연합복권 '로또복권'으로 출범했다. 2003년 역대 최고 당첨금인 407억 원을 받은 행운의 주인공이 30억 원을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하는 등 총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는 통 큰 선행을 하기도 했다. 사랑의열매는 2006년부터 복권 기금으로 아동·청소년 야간보호 사업을 하고 있다. 저소득 맞벌이가정의 자녀 양육과 보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야간보호교사'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식삼조'의 사업 효과를 거두고 있다.

6

아낌없이 주는 나무

유산기부

유산기부는 보통 재산이 많은 기업가나 자산가들의 활동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랑의열매에는 여느 유산 기부와는 달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나 평생 어렵고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기탁하는 미담 사례가 줄을 이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매달 받는 4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모아 기부하는 것은 물론 옥탑방의 전세보증금까지 내놓은 김춘희 할머니는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김춘희 할머니의 아낌없는 나눔은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탐욕과 다툼의 시대에 경종을 울렸다.

4

5

3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공익 버라이어티 전성시대

2000년대 초 '쌀집 아저씨'로 더 인기를 모았던 MBC 김영희 PD와 사랑의열매의 합작품으로 TV 공익 버라이어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총 25권의 지정 도서는 소개될 때마다 1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초베스트셀러가 되어 당시 도서 판매 집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조성된 기금으로 강원도 원주, 전남 순천 등 독서문화 환경이 열악한 전국 12개 지역에 어린이 전문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해 TV 오락 프로그램을 넘어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냈다. 당시 미완의 계획이었던 '평양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착한 나눔'

'착한가게'의 변신은 무죄

'행복이 착, 나눔이 착, 혜택이 착'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나눔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착한가게'는 나누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방법을 몰라 참여 못했던 잠재기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나눔 프로그램이다. 전국 2만 개 이상의 가게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나눔 프로그램이 된 '착한가게'는 '착한거리' '착한빌딩' '착한일터' 등으로 발전해 새로운 나눔을 만들어 내고 있다.

19



‘1318 사랑의열매 캠프’

나눔의 미래를 위하여

2003년 시작한 ‘1318 사랑의열매 캠프’는 봉사 활동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점수 따기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던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체험형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깨칠 수 있게 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현장에서 2박 3일간 숙식하며 참여하는 ‘1318 사랑의열매 캠프’는 대학사회복지관협회, 인천YMCA 등 협력기관의 노력으로 대표적인 청소년 복지, 봉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지금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했지만 ‘나를 위한 봉사활동’에 지나지 않았다. ‘1318 사랑의열매 캠프’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 나눔의 미래상이라 할 수 있다.



7

다함께 차, 차, 차

희망의 동그라미

거리에 나가면 빨간 사랑의열매를 달고 있는 차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차량 지원은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20년간 사랑의열매는 수천 대의 차량을 지원해 ‘움직이는 복지 서비스’의 상징이 됐다. 이를 통해 전남 해남의 장애인이 새롭게 배움을 시작했다. 이렇게 소외계층이 삶의 목표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전국에서 ‘희망의 동그라미’가 달리고 있다.

8

‘미신고시설’을 아시나요?

서류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존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미신고시설’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복지와 인권, 건강 등의 문제로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랑의열매는 정부와 정책 협의를 통해 신고시설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사랑의열매는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서 1,300여 개소의 미신고시설의 존재를 파악해 추후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기초적인 복지사업을 통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9

위기가정 지원 사업

‘건강한 돌봄 공동체’를 위하여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높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난치병 어린이의 부모들은 매일 가슴이 새키말게 타들어 갔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구하자’는 심정으로 진행된 모금캠페인은 교육청 관계자, 의료인, 언론인들이 난치병 환자 가족들과 함께 국가의 의료지원 범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후 희귀·난치병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통해 드러난 공공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위기가정 지원 사업’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역시 올해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10



‘시소와 그네’

평등한 출발을 위하여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지역의 사회복지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소와 그네’다. 영유아의 신체·인지·정서적으로 균형 있는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랑의열매 최초의 논리 모델을 적용했다. 또한 참여 지회를 내부 공모를 통해 결정하고 지자체와 협약까지 체결한 민관공동사업이었다. ‘시소와 그네’ 사업은 이후 정부의 ‘드림스타트 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영유아 관련 사업의 확대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금도 현장에서 ‘가장 사랑의열매다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금함

니눔의 블랙박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모금함은 기원전 유대인들이 오래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성전 출입문 한쪽에 구멍을 뚫은 상자를 설치한 것으로 이를 통해 드나드는 사람들로 부터 기부금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모금함은 많은 사람이 접하기 쉬운 곳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모금함은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에 사랑의열매가 덩그러니 그려져 있는 ‘투박한’ 형태였다. 그러다 ‘접이식 모금함’ ‘유리병 마개 모금함’ ‘얼짱 모금함’ 등 다양한 모금함이 출현했다. 최근 카드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모금함’도 등장했다.



14

13

12

11

세계 속의 ‘사랑의열매’

국경을 넘은 사랑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부터 1995년 원조대상국에서 제외될 때까지 세계 5위의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이었다. 그러나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 사랑의열매는 세계 곳곳에서 빈곤과 질병 퇴치를 통해 사랑의열매를 전했다. 2001년 미국 9·11 참사 지원을 시작으로 2004년 인도네시아·아이티 지진, 필리핀 태풍 등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모았다. 2005년부터 최빈국과 해외동포 밀집 지역 등에 의료, 재활 등 지역 사회 중심 복지 서비스 수준을 높였다. 이와 함께 북한 수해 복구 지원은 물론, 의료·보건 체계 현대화와 영양개선, 의료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위원회·중립성과 전문성의 보루

사랑의열매와 같이 기부금을 모으고 지원하는 조직은 중립성, 객관성,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회장과 임원진은 물론,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모금과 배분사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했다. 지난 20년간 이사, 위원으로 사랑의열매와 함께한 각계 전문가는 5,000여 명이 넘었다. 시민 참여의 가장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인 ‘위원회’는 지난 20년간 사랑의열매와 함께했던 것처럼 새로운 20년 역시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또 때로는 가장 엄격한 비판자로 함께 성장할 것이다.

노숙인

다시 세상 속으로

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온 나라에 몰아친 풍파에 못 이겨 거리 곳곳에는 수많은 노숙자가 생겨났다. 이들은 대부분 가출, 실종 등의 상태로 주민등록마저 말소되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사랑의열매는 노숙자들이 자활과 자립을 통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임시 주거 지원 사업'을 펼쳤다. 사업 첫해 1,200여 명의 노숙자들이 주민등록을 살려 정부 지원을 받고 자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사업의 효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홍보대사

마음이 더 아름다운 사람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돌려주고 있는 스타들, 많은 스타가 사랑의열매와 함께했다. 1999년 영화배우 문성근과 최종원, 가수 양희은씨를 시작으로, 12월 탤런트 채시라와 체육인 박정태, 허재, 이승엽 등이 홍보대사가 됐다. 특히 채시라씨는 20년 동안 홍보대사를 하고 있다. 개그맨 황기순씨도 지난 18년간 '사랑더하기 자전거 국토대장정'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연예인 봉사 모임 굿프렌즈를 결성, 많은 연예인이 홍보대사를 맡았고, 경기 사랑의열매에서는 가수 현숙과 방송인 김혜영이 아닌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나눔에 참여했다. 울산 현대축구단, 대전 한화 이글스, 경남 NCD아노스 등 구단 소속 스포츠 스타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네

쪽방촌 이야기

상수도 파이프가 거미줄처럼 공중에 달려 있고, 어디가 입구고 어디가 출구인지 알 수 없는 미로처럼 얽혀 있는 판자촌에는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웃들이 살고 있다. 사랑의열매는 쪽방촌을 비롯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의료, 복지, 주거, 일자리 등을 지원해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 미안하다'며 설탕에 버무린 누룽지를 권하는 어르신들과 거주민들에게 이제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전동휠체어, 저상버스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를 위하여

2003년 12월, 전동휠체어의 보험 확대 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전동휠체어는 대당 400만~500만 원이 넘는 고가로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사랑의열매와 전경련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희망의 동그라미-전동휠체어' 사업을 실시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총 5,698대의 전동휠체어를 전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촉진을 위한 '저상버스' 역시 사랑의열매가 2002년 부산장애인아시아게임에 5대를 지원해 국내 최초로 운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각 지자체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면서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되는 마중물이 되기도 했다.



21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람'

공동모금회의 지난 20년을 대표하는 20개의 키워드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21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람'이었다.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자와 봉사자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뒤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는 사랑의열매 직원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이 더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를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나란히 서 있는 '사랑의열매'는 그래서 어제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모두의 가슴에서 밝게 빛나는 희망의 빛이다.

기업 사회공헌

나눔문화 발전의 동반자

사랑의열매와 기업 사회공헌은 지난 20년간 한국의 나눔문화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함께해 왔다. 이에 기업기부는 2010년 2,276억 원, 2011년 2,509억 원, 2012년 2,924억 원, 2013년 3,004억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국내 1,000대 기업 중 622개 기업이 사랑의열매를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할 정도로 대표적인 사회공헌 동반자로 성장했다. 최근 기업 사회공헌은 전문화, 집중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사랑의열매도 양적인 성장 중심에서 기업별 특화 프로그램은 물론 사회혁신 분야에 대응하는 해결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기업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공헌을 준비하고 있다.



'뿌리 깊은 나눔은 바람에 아니될새'

지역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각종 복지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모금사업을 개발해 실천해 왔다. 서울은 '행복한 유산기부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했고 부산은 《부산일보》 연재 '사랑의 징검다리' 캠페인과 부산국제영화제 '정겨운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좌석 나누기와 한글자막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구는 교육청과 함께 사랑의 손잡기 운동 난치병 어린이 돕기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2003년 TJB 대전방송의 <365일 천국보다 아름다운 세상>은 이후 7개 지역의 민방이 참여하는 공동제작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 4년간 ARS 참여인원이 12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19세 아너·18세 나눔리더 젊은 기부자가 늘고 있다

기부자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사랑의열매 기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면서 기부에 참여하는 연령층도 두꺼워졌다. 이제 기부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중년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 시대 나눔을 이끌고 있는 젊은 기부자들을 소개한다.



33세 허세희 쿨 이너프 스튜디오 대표

더불어 사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일 선물로 아너 가입

허세희(33) 쿨 이너프 스튜디오 대표는 지난 6월 자신의 생일을 맞아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약정회원에게 가입했다. 10세 아이의 엄마이자 기업을 책임지는 오너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눔을 실천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이다.

“아이를 낳아 보니 주변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버림받는다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여유가 있어 기부를 결정한 건 아니다. 그가 아너가 된 이유는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지난해 매출이 기대했던 것보다 높아 감사한 마음이 있었죠. 직원들과 회사 규모가 좀 더 커지면 기부도 하고 함께 봉사활동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올해 회사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만 탓하다 보면 영영 나눔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허 대표는 매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를 한다. 일종의 선물이다. 올해는 생일 선물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물론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허 대표는 “매월 ‘행복 적금’을 한다 생각하며 기부한다”고 했다.

기부를 망설이는 이들에게 허 대표는 “나눔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못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일단 마음을 정했다면 시작하길 바란다. 기부금이 얼마가 됐건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나눔이라는 의미 있는 삶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녀 소사이어티

19세 김민준 뷰티패스 대표

스타트업 만들 때 주위 도움 받아... 은혜 갚는 심정

사랑의열매의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어녀 소사이어티가 1,900호 회원을 맞았다. 그 주인공은 스타트업인 뷰티패스의 김민준 대표다. 김 대표는 올해 만 19세로 기업인으로는 최연소 회원이다. 또한 지난해 경제지 《포브스(Forbis)》가 선정한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인물 30세 미만 30인에 아시아 최연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2015년 (주)바오바르코리아를 중국 징웨이약국에 매각한 수익금의 일부로 UN NGO ‘준브레일’을 설립해 사회공헌활동을 해왔다. 준브레일은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점자책 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을 했으며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책을 무상 기부하는 활동을 해왔다. 준브레일은 정부로부터 비영리단체 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UN으로부터 공식 NG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김 대표가 창업해 이끌고 있는 뷰티패스는 국내 최대의 뷰티 커머스 기업으로 한중일 미용 목적 의료 시장에서 피부과 네트워크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뷰티패스는 피부과 병의원의 진료비 정보와 이용 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부과 멤버십 커뮤니티 앱을 통한 의료 상품 판매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준 대표는 “처음 스타트업을 설립할 때에도 훌륭한 스승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착한가정

30세 전정운 아이파크부동산 대표

암투병 어머니에게 착한가정 인증패 드리고 싶어 가입

전정운(30) 아이파크부동산 대표는 착한가정에 이어 착한가정까지 가입했다. 일과 대학원 공부까지 동시에 해내고 있는 전정운 대표는 기부에도 열심을 다한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파크부동산 뿐만 아니라 독립하기 전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부동산도 착한가정에 가입했다. 이와 함께 그의 가정 또한 착한가정에 가입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의미 있는 선물을 생각하다 평소 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는 어머니 성품에 맞게 착한가정 인증패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았죠.”

인증패에는 가족사진과 함께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성경》 신약 요한일서 3장 18절을 넣었다. 인증패를 받고 기뻐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행복했다고 한다. 이 외에 전 대표가 힘들 때 도움을 주었던 지인의 이름으로도 가입해 인증패를 선물했다고 한다.

“돈은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수입의 20%는 기부를 하기로 원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금액을 점점 늘려가고 있죠. 책에서 보니 어떤 분은 수입의 90%를 기부하고 나머지 10%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 전 80%는 제가 쓰고 있잖아요.”

그에겐 꿈이 있다.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을 4년 장학생으로 다니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터라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단다. 받은 게 많으니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알바비 전액 기부한 18세 백선비 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



지난해 11월 사랑의열매에 100만 원을 기부하며 10대 나눔리더가 된 백선비(18) 군. 그는 난생처음 동네 빵집에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을 전액 기부했다. 월급 75만 원에 자신이 모아둔 돈 25만 원을 더해 사랑의열매에 전했다. 백군은 “신문을 보다 ‘이영학 사건’으로 인해 ‘기부포비아’가 퍼지면서 기부가 줄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이런 사람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선비 군은 이름처럼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선비정신을 가졌다. 경북 경산 문명고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것에 반발해 자퇴했다. 백군 부모도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현재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대학 수시 모집에 원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백군은 “역사에 관심이 많아 역사학 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밝혔다.

평소 백군은 근처 복지관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고, 포항 지진 현장에도 찾아가 손을 보탤었다. 백군은 “기부를 하면 기분이 좋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좋다. 나눔은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29세 김시래 LG레이커스 소속 농구선수

지역사회 이웃 위해 기부할 수 있어 기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개인기부자를 ‘나눔리더’라고 한다. 스포츠 스타들도 나눔리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LG세이커스 팬 출정식에서 김시래(29) 선수가 경남 나눔리더 운동선수 2호로 가입했다.

김시래 선수는 “창원을 연고지로 둔 LG세이커스 구성원으로서 평소 지역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단순한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앞으로도 나눔의 행복을 느끼고, 가치를 나눌 줄 아는 선수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용희 경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으로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김시래 선수와 LG세이커스의 선전을 기원하며, 우리 지역이 나눔으로 더 따뜻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지역 내 저소득가정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착한가게

35세 정민환 깐깐한패밀리 대표
**수익 일부 사회 환원 차원...
 개인적으로 매달 별도 기부도**

젊은 사장들이 늘면서 착한가게에 참여하는 젊은 기부자들 또한 늘고 있다. 착한가게는 중소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매출의 일정액을 매달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부캠페인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참숯직화구이 족발 맛집으로 유명한 깐깐한족발도 착한가게에 동참했다.

정민환(35) 깐깐한패밀리 대표는 “2013년 8월 깐깐한족발을 오픈할 때부터 수익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겠다 생각했다”며 “우연한 기회에 착한가게를 알게 됐고 주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가입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착한가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랑의열매에 매월 10만 원씩 기부한다.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 대표는 “유년 시절 어렵게 보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기부라는 게 마음을 트고 시작하기가 힘들지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어렵지 않다”며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내가 술 한 잔 안 마시고 이웃을 생각해 기부한다면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될 수 있으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착한가게

33세 김경진 면맛에입맛이좋아 대표
**사회복지사 어머니 영향 받아...
 경로잔치도 구상**

김경진(33) 면맛에입맛이좋아 대표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지난해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왔다. 그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던 국숫집을 맡아 열심히 국수를 삶고 있다. 그는 국숫집을 맡고 나서 가장 먼저 기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랑의열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셨고 지금도 노인복지 관련 활동을 하고 있어서 기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경진 대표가 운영하는 국숫집 면맛에입맛이좋아는 제주 생산을 수산리 생산일출봉으로 가는 길에 있다. 이곳은 관광지라기보다 농사가 주업인 작은 시골마을이다. 어느 농촌이나 그렇듯 수산리도 어르신들이 많다. 그는 “착한가게를 통해 전하는 기부금이 동네 홀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동네분들이 국수 드시고 맛있다고 하면 제일 기분 좋아요. 관광객들은 언제 또 오실지 모르지만 동네분들은 매일 보거든요. 이웃에게 인정받는 게 큰 힘이지요.”

김 대표는 앞으로 매출이 좀 더 안정되면 기부액도 늘리고 동네 경로잔치와 같은 마을 행사에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어르신 찾아 마을로 행복 버스가 뚝뚝뺑뺑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읍내 노인복지관 이용은 쉽지 않다. 우선 차편이 많지 않고 몸이 불편해 이동도 어렵다. 무엇보다 농촌 어르신들은 바쁘다. 이 같은 사정에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이 쉽지 않다면 직접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충남 예산군 예산노인종합복지관은 45인승 버스를 개조해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 단위 지역을 찾다니며 ‘해피버스데이’ 복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에 움직이는 노인복지관 ‘해피버스데이’

충남 예산 지역은 2016년 기준 60세 이상 노인 중 노인복지관 등록 비율이 예산읍의 경우 25.4%로 높지만 나머지 지역은 7.8%에 불과하다. 바쁜 농번기 땀 이마저도 더 떨어진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동할 교통수단도 마땅찮다. 하루 한 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시내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고 산 넘고 물 건너 읍내까지 나와야 하니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몸도 마음도 불편해 집에 있거나 경로당에 나가 동양화(?) 게임을 하는 게 전부다.

이런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어르신이 불편함 없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있다. 움직이는 노인복지관 ‘해피버스데이(Happy Bus Day)’가 그것.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해피버스데이’는 삼성전자가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나눔과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산군 내 10개 면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하루 2개 면을 찾다닌다. 이렇게 마을당 일주일에 1회씩 한 달에 총 4회를 간다. 모든 프로그램은 버스 내에서 진행된다. 버스를 노래방으로 꾸며 함께 즐기는 ‘노래교실’, 이웃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친구만들기’, 치매예방을 위한 ‘두뇌운동교실’ ‘버스 영화관’, 어르신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사랑가득

마을’ 등 5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을마다 매주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가 어르신들의 호응도나 참여율이 높다.

노래도 배우고 영화도 보고... 호응 높아

지난 10월 12일 아침 9시 30분이 되자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월교회 앞에 해피버스가 들어섰다. 해피버스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양인모(52)씨는 “어르신들이 미리 나와 기다리시기 때문에 약속된 시각보다 항상 30분 먼저 온다”고 했다. 지팡이 짚고, 유모차를 밀고 어르신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양씨는 버스에 오르는 어르신의 손을 잡아주며 “잘 계셨슈, 요즘 다리는 좀 어떠셔유” 하며 안부를 물었다. 신월2리 어르신들에게 해피버스는 놀이터다. 이날 버스에 오른 어르신은 16명이다.

10시가 되자 가수 현철의 노래 ‘사랑의 이름표’가 흘러나왔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어르신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강사의 지도에 따라 머리, 어깨, 가슴, 배를 손끝으로 두드렸다. 동요 ‘산토끼’에 맞춰 손가락을 번갈아 폼다 폼다 접는 손가락 운동도 했다. 왼손은 엄지, 오른손은 검지를 폼다다가 다시 바꿔 오른손은 엄지, 왼손은 검지를 폼다하는 것이다. 박자에 맞춰 계속 바꾸는데 쉽지 않아 보였다. 손가락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엄지와 엄지, 검지와 검지가 퍼진다. 서로 다르게 폼 손가락을 보며 버스 안은 금세 웃음



꽃이 활짝 피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경순(48) 강사는 “사람의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굳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 두뇌 활동을 돕는 두뇌운동교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명씩 짝을 지어 손뼉 치며 노래 부르는 활동과 손가락을 이용해 탁구공을 나르는 릴레이 게임도 했다. 어르신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김경순 강사는 “어르신들이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면 내가 더 행복하다”며 “프로그램 마치고 헤어질 때 아쉬워 눈물 흘리는 어르신을 볼 때 더 자주 찾아오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입소문 퍼져 마을마다 서로 와달라고 인기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해피버스테이는 8개월간 총 284회를 운행해 2,257명이 이용했다. 평균 7.9명이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6개월 만에 지난해 이용자를 넘어섰다. 총 3,241 명이 이용해 평균 11.7명이 참여했다. 김윤진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사회참여지원과장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참여자가 없어 그냥 나오는 마을도 있었는데 이제 입소문이 나서 서로 우리 마을에 와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군 광시면에는 경로당 회원이 6명뿐이었는데 해피버스테이 운영 후 상시 모임을 갖는 인원이 17명으로 늘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없는 날에도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움도 달래주는 해피버스테이 프로그램이 전국의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농촌 어르신들에게겐 안성맞춤”

김윤진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사회참여지원과장

“움직이는 노인복지관 사업을 기획할 때 ‘이게 과연 될까’ 고민했죠. 삼성전자 나눔과공공 모모사업 설명회에 참여했을 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를 시도해 보라’는 관계자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벌써 2년입니다.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교통편이 없고 몸이 불편해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해피버스가 삶의 즐거움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지원이 끝난 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농촌의 노인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착한기업_BNK경남은행

글 박미진 사진 BNK경남은행

BNK 경남은행

영업이익 1% 지역사회 환원 바람^{Hope}이 바람^{Wind} 되다

‘2018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55명 동시 가입,
25,000℃ 릴레이봉사 시작. 지역 밀착형 공익사업으로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BNK경남은행에 2018년은
그 어느 때보다 뜻깊고,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되고 있다. “배려와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마인드로 계층 간
격차 해소, 나눔문화와 주민 복지 확산에 힘쓰고 있는 BNK경남은행의 아름다운 선행을 만나본다.



2018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공익재단 설립 취지에 맞춰 충실하게 추진해 온 사회공헌사업 노력이 큰 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나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진행된 '2018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현장. BNK경남은행은 2006년 공익재단 설립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본점과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 등지에 160여 개의 영업점을 두고 있는 BNK경남은행은 경남 지역민들을 위해 부지런히 활동하는 착한기업으로 손꼽힌다. 2005년 전국 지방은행 최초로 공익재단인 BNK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을 설립하고 사회공헌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폭넓은 사회공헌사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장학복지지원, 노인·장애인복지지원, 문화·예술지원, 체육지원, 환경개선지원 등 5대 목적 사업을 선정하고 현재까지 누적 금액 228억 원을 지원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은행장 등 55명 나눔리더 전국 최대 동반 가입도

매년 영업이익의 1% 이상을 지역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BNK경남은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 확산을 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남·울산·부산 지역에 단비가 돼주고 바람(Hope)을 이뤄준다는 'BNK 바람통장'이다. 2015년 출시 후 통장의 수익 일부를 지역 소외계층 구호기금으로 경남 사랑의열매와 울산 사랑의열매에 기탁하고 있다. 통장을 이용하는 지역민들도 간접적으로 나눔에 동참하는 셈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한 금액 1억 원은 경남·울산·부산 지역 소외계층 1,690가구의 의료비 지원으로 사용됐다. BNK경남은행은 앞으로도 공익형 금융상품의 판매 수익 기탁으로 고객에게 가치와 희망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방침이다.

지난 10월 15일에도 BNK경남은행은 나눔 의지를 실천했다. 황윤철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과 본부 부서장 등 55명이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에 동반 가입한 것. 나눔리더는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개인기부자 모임으로, 100만 원 이상 일시 또는 1년간 약정 기부로 가입할 수 있다. 이로써 BNK경남은행은 나눔리더 전국 최대 인원 동시 가입이라는 또 하나의 진기록을 세웠다.

이날 새로 나눔리더가 된 황윤철 은행장은 “이번 나눔리더 가입은 BNK금융그룹에서 시작돼 계열사로 확대되고 있는 사랑나눔활동”이라며,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널리 확산시키는 나눔리더 가입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



으로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BNK경남은행의 아름다운 나눔의 기록들을 만나본다.



여성 백일장 및 어린이 사생 실기대회

여성과 어린이 위한 지역 대표 문예행사
4월에 창원·진주·김해·울산 동시 개최

“참가자 모두 잠재된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뽐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추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BNK경남은행의 ‘제28회 여성 백일장 및 어린이 사생 실기대회’ 현장. 황윤철 은행장의 개회사가 끝나자 참가자들의 즐거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올해 그림

의 주제는 ‘과학상상화’와 ‘풍경화’. 하얀 도화지는 곧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이들 특유의 풍성한 감성이 담긴 세계로 물들어갔다. 한편에서는 ‘소풍’을 주제로 문학소녀로 돌아간 엄마들의 모습들도 보였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즐거웠던 소풍의 추억을 더듬는 이부터,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는 소풍까지 다양한 추억들이 원고지에 옮겨졌다.

참가자들이 열심히 창작의 나래를 펼치는 동안 함께 자리한 가족들은 BNK경남은행이 마련한 요술 풍선, 뽕튀기,



공연, 타투 등의 부대행사를 즐기느라 바빴다. 여성과 아이들의 뜨거운 열정이 아기와 아빠, 손주와 할머니의 행복한 웃음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다.

5만여 명 참여… 가족에는 추억 선물

여성 백일장 및 어린이 사생 실기대회는 BNK경남은행이 1990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28회 동안 총 17억 원을 들여 개최해온 지역 대표 문화 행사다. 매년 행사 기획부터, 진행과 이후 심사를 통한 수상자 선정, 시상, 전시까지 몇 달간 정성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창의력과 감성지수를 키우고, 함께 하는 가족은 화목지수를 높이는 기회를 얻고 있다. 물론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잊지 못할 가족의 추억을 만드는 좋은 선물이 되고 있다.

올해는 창원(용지공원 포정사)·진주(진주성)·김해(국립김해박물관)·울산(울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동시 개최 5만여 명(참가자 가족 포함)이 참여해 행사를 즐겼다. 출품된 작품은 무려 1만 5,000여 점. 문인협회와 미술협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여성 백일장 장원 2명과 어린이 사생 실기대회 최우수상 6명을 포함, 총 3,388명과 7개 단체에 상금과 상패, 부상이 주어졌다.

BNK경남은행은 행사 개최에만 그치지 않고 우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6~7월 동안 경남 3곳과 울산 1곳 BNK경남은행 지점에서 24점을 2주간 분산 전시한 것. 경남 지역 여성 백일장 부문 장원 양미지씨는 “우연찮은 기회에 기대하지 않은 큰 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다. 수상을 계기로 작문에 관심을 두고 자기 계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노인·장애인 지원 사업

소외계층에 생필품과 상품권 전달

혹서·혹한기에는 냉난방용품 제공도

BNK경남은행은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의 노인·장애인 지원 사업에 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누적 집행 금액만 해도 82억 원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지원은 설과 추석 명절 지원이다. 온 가족이 한데 모이는 명절에 취약계층이 느끼는 소외감

은 더 커지게 마련. 이를 위로하기 위해 생필품과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올 추석 BNK경남은행은 울산광역시 7,0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홀어르신·새터민·다문화가정·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1,400가구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단체장과 은행 봉사대, 사랑의열매, 여성단체협의회 등의 자원봉사자가 정성껏 만든 송편을 울산광역시 관내 44개 복지시설에 전달해 마음을 전했다.



소외계층의 혹서기와 혹한기 여름나기와 겨울나기 성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폭폭 찌는 여름에는 ‘행복한 여름나기 나눔’으로 선풍기를 3,500여 가구에 전달했다. 환파가 몰아치는 겨울에는 극강의 추위에 대비해 연탄과 전기장판을 전하는 ‘행복한 겨울나기 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머니의 손맛을 닮은 김치를 담가 경남 18개 시군 및 울산시 추천 소외계층 5,400가구에 사랑의 김치를 전달하고 있다.



25,000℃ 릴레이 봉사 온기 더하GO(고)

임직원 2,500명이 1인당 10시간씩 봉사
환경 정화도 하고 지역 내 어르신들 돌봐

BNK경남은행 임직원들은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앞둔 8월 말 의미 있는 도전을 시작했다. 2,500여 명의 임직원이 1인당 10시간씩 봉사해 사랑의 온기 25,000℃를 이룬다는 ‘25,000℃ 릴레이 봉사’에 나선 것. 창원, 진주, 울산, 김해 등 경남과 울산 지역의 환경정화, 구호, 자선, 기부 등 다양한 테마로 도움을 전하는 봉사활동이다.

25,000℃ 릴레이 봉사의 첫 온기는 8월 25일에 진행된 주요 명소 환경정화로 처음 전해졌다. 폭염에 지친 지역민에게 시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었던 창원 무학산 서원곡과 용지공원, 김해 해반천, 진주 남강둔치, 거제 흥남해수욕장, 울산 십리대밭 등 주요 명소의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270명의 임직원이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꼼꼼하게 수거했다.



25,000℃ 릴레이 봉사는 환경뿐 아니라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 나눔에도 힘을 더했다. 시즌2의 시작인 10월 13일 '기쁨 두 배 요양원 봉사'를 주제로 60여 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창원 마산시니어 카운티, 김해 보현행원, 진주 프란치스코의 집, 울산 어르신행복마을을 분산 방문한 것. 어르신들과 함께 요양원 주변 환경을 정화하고, 미술 공예품을 만들며 도란도란 따스한 온기를 전했다.



봉사단의 무한변신으로 적재적소에 도움의 손길

25,000℃ 릴레이 봉사는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자율봉사가 특징이다. '복지시설 구호' '생명 숲 가꾸기' '복지시설 사랑나눔' '아이 사랑 애육원 봉사' '농번기 일손 더하GO(고)' 등 매회 테마를 정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유연하고, 빠르게 힘을 보탠다.

덕분에 참여하는 봉사단의 만족도가 상당하다.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는 시간이 안 맞으면 참여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원하는 때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 평소 관심 있던 봉사를 골라 참여할 수 있어 느끼는 뿌듯함도 크다. 2018년의 끝자락에도 봉사의 땀방울을 열심히 흘리고 있는 나눔의 달인 BNK경남은행. 2019년의 시간도 나눔으로 행복하게 기록되기를 바라본다. ❀

착한일터_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글 홍경기 사진 한준호



에너지 소비 취약 주민에 사랑의 빛이 반짝반짝

한국전력공사는 우리나라 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들어가길 희망하는 곳이다.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만큼
공사 직원들은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오랜 시간 지역 내
에너지 취약 계층과 불우 환경 주민을 위해 나눔과 봉사활동에 매진해 왔다. 아름다운 그들을 찾았다.

전력 자원 개발 촉진, 전력 수급 안정화,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한국전력공사(KEPCO)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KEPCO는 설립 목적에 따라 전력 자원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 개발, 국외 사업 투자 또는 출연, 보유 부동산 활용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고품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글로벌 경쟁력을 끊임없이 강화시킨 결과 2017년 말 기준 임직원 2만 2,000여 명, 총자산 181.7조 원, 매출액 59.8조 원에 달하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 공사 기업으로 발전했다.

KEPCO에 소속된 여러 지역본부 중 인천지역본부는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등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전력 소비자들을 위한 여러 지원 활동을 벌여왔을 뿐만 아니라 공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위한 나눔 및 기부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면서 KEPCO 내 모범적인 지역본부로 꼽혀왔다.

착한일터로 선정... 급여 일부 적립하고 회사도 지원

2017년 사랑의열매 착한일터로 가입한 KEPCO 인천지역본부는 현재까지 총 4,800만 원을 기부, 지역사회 현안 해소에 일조해 왔다. 직원들 급여 일부를 매달 기부금으로 적립하고 회사에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결과다.

KEPCO 인천지역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 김현주 차장은 "지역을 책임지는 공사 기업이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은 비단 업무적인 일에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환경으로부터 지역 내 소외받는 이들, 불우한 이들을 살피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는 것도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해요"라면서 쉬지 않고 봉사와 나눔을 진행해 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같은 부서 정창화 과장은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활동을 벌여오다 점점 규모가 커지고 대상이 넓어지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봉사, 나눔활동 방법을 고민하게 됐어요. 사랑의열매는 공신력 있는 단체로 저희의 고민을 덜어줄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매우 만족스럽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실제 인천지역본부가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은 지난해 여름 재난 수준 폭염으로 지친 에너지 취약 계층, 쪽방촌 거주자 및 홀어르신 322가구에 인천 강화 지역 쌀을 구매해 전달했으며, 관내 저소득 취약 계층, 사회복지 시설 등에는 인천 사랑의열매를 통해 300만 원에 달하는 냉방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 달에 한 번 현장봉사... "뿌듯함을 느껴요"

더불어 송전선로 건설에 도움을 준 강화도 주민을 위해 강화섬쌀 700포를 구매해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한편, 매달 지역을 돌며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김현주 차장은 "혼자 봉사를 하거나 나눔활동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일손이 부족해 힘에 부치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회사에서 봉사단을 꾸려 활동하니 이런 고충들이 없어 좋아요"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직원들에게 적지 않은 뿌듯함을 주는 기회예요. 다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는지 몰랐다'면서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



200여 명이 근무하는 인천지역본부가 책임지는 곳은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그리고 시흥시 일부 지역이다. 우리나라 서쪽 주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 시간 꼼꼼히 지역을 돌아본다. 기획관리실, 전력사업처, 전력관리처로 구성돼 있으며 2018년 8월 현재 인천지역본부 직할로 26만 5,878호에 3억 9,596만 8,631kwh에 달하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_강원 정선

글 사진 조혜원(여행작가)

가을이 익어가는 억새와 아리랑의 향연

가을이 심름 다가왔다. 도심 가로수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고, 벌달 숲에서
고개를 들면 새파란 하늘이 저만치 놓여져 있다. 슬나저릴 지나가 버리는 가을, 기꺼이
미중 나가 온몸으로 즐겨야 한다. 가을의 대명사 억새가 하늘과 맞닿은 그곳,
정선 민들산으로 떠나보자.





강원도 비경과 간이역 풍치 즐기는 **아리랑열차**

이름도 정겨운 '정선아리랑열차'를 타고 정선으로 향한다. 매일 1회, 청량리에서 출발해 제천, 영월, 민동산, 정선을 지나 아우라지역에 도착한다. 민동산역까지만 가도 좋고, 정선역으로 가서 오일장과 레일바이크를 탄 후 오후 즈음 민동산으로 넘어가도 좋다. 정선아리랑열차는 기존 정선선 무궁화호를 대신해 관광열차로 운영되고 있다. 풍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정선선과 그 안의 이야기를 품은 간이역을 지난다. 선평역, 나전역에서 열차가 5분씩 정차해 간이역의 정취도 느낄 수 있다. 정선아리랑을 주제로 열차가 꾸며져 있어 여행의 기분을 한껏 오르게 한다. 열차 안에서 소소한 이벤트도 열리고 양옆 시원하게 뚫린 창으로 강원도의 풍광이 들어온다.

해발 583m에서 바라보는 절경 **병방치스카이워크**

병방치스카이워크는 여의도 63빌딩의 두 배 높이인 해발 583m의 절벽 끝에 매달린 전망대다. 동강이 산을 휘감아 돌아 한반도의 모양을 한 밤섬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투명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동강을 발아래 두고 둥둥 떠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한반도 모양의 밤섬과 단정하게 구획을 나눠 발을 일군 마을이 저 멀리 보인다. "깹~" 우측에서 짚와이어를 타고 내려가는 이들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스카이워크에서 나와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짚와이어 타는 곳이다. 짚와이어는 아래 광하리 생태체험학습장까지 1.1km를 쇠줄로 연결해 도르레를 이용해 활강하는 레포츠다. 심호흡을 하고 허공을 향해 발을 떼면 한반도가 와락 품으로 안겨온다. 처음엔 비명을 지르던 사람도 20초쯤 지나면 두 팔을 벌리고 바람과 풍경을 온몸으로 맞이한다.

콧등치기국수·곤드레밥의 향연 **정선아리랑시장**

정선아리랑시장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상설시장이자, 2와 7로 끝나는 날에 서는 오일장이다.



왼쪽 페이지 강원도 정선 민동산 역새품이 가을별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다.

1 민동산 역새품 구경 가는 방법으로 정선아리랑열차를 추천한다. 열차를 타고 가는 동안 소소한 이벤트가 이어진다.

2 정선아리랑열차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한다.

3 병방치스카이워크는 해발 583m의 절벽 끝에 매달린 전망대다.



1



2

- 1 겹겹이 펼쳐진 산등성이 사이로 해가 뜨고 있다. 민둥산의 또 다른 볼거리다.
- 2 한반도 모양의 밤섬을 끼고 동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다.
- 3 정선 아리랑센터에서는 정선오일장이 열리는 날 2시에 '아리 아라리'가 공연된다.
- 4 정선오일장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상설시장이다. 2와 7로 끝나는 날에 장이 선다.



3



4

강원도의 높고 깊은 산지에서 나는 곤드레, 더덕, 굴취 등 산나물과 정선의 특산물 황기를 비롯한 약초를 파는 상점과 먹자골목도 있어 오일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도 사람들로 북적인다. 먹자골목엔 강원도를 대표하는 메밀전병, 배추전, 수수부꾸미가 관광객들의 허기진 배를 유혹한다. 여기에 정선의 대표 음식 콧등치기국수, 곤드레밥, 올챙이국수, 수리취떡 등도 있어 먹거리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다.

정선의 곤드레 나물은 해발 700m 이상에서만 자라는 것을 채취해 질기지 않고 맛과 향이 순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콧등치기국수는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반반 섞어 만든 면을, 겨울엔 칼국수처럼 여름엔 냉메밀처럼 말아 먹는 국수다. 면발이 탄력이 좋아 후루룩 먹으면 콧등을 친다고 해 콧등치기국수라는 말도 있고 뜨거울 때 먹으면 코에 땀이 송골 송골 맺혀 콧등튀기라는 설도 있다. 아무렴 어쩐가, 맛있게 먹으면 된다. 후루룩 면발을 끌어당기니 정말 면발 끝이 춤을 춘다.

오는 11월 27일까지 오일장이 열리는 날 오후 2시에 아리랑센터에서 '아리 아라리' 공연을 볼 수 있다. 공연 시작 전 관계자로 보이는 분이 한국 사람에게 아리랑의 피가 흐른다고 말했다. 옛 시대의 설움이나 한을 교과서로만 배워온 세대에게 아리랑의 정서란 짐작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정선 주민들로 이뤄진 공연단의 노래는 운몽 깊이 파고든다. 깊이 이를 가능할 수 없는 울림이 내내 머릿속을 맴돌 만큼 멋진 공연을 볼 수 있다.

깊어가는 가을 역사의 바다 민동산

민동산은 이름처럼 민동머리산이다. 산 정상에 나무가 거의 없지만 바람에 훑날리는 멋진 역사를 가졌다. 넓게 펼쳐진 산마루에 역사가 한가득이다. 파도처럼 출렁이는 역사가 하늘과 맞닿아 있어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하다. 10월이면 역사가 산 정상을 가득 메우고 11월 중순까지 역사를 볼 수 있다. 민동산 산행은 증산초등학교 앞에서 시작한다. 2.4km의 금경사 코스와 3.2km의 좀 더 완만한 코스가 있으니 선택하면 된다. 어느 코스든 넉넉히 두 시간이면 충분하지만 그리 만만한 산은 아니다. 전문 등산장비까지 아니어도 등산화, 정상에서 강한 바람을 막아줄 얇은 겉옷을 꼭 준비해야 한다.

정상에 오르는 길엔 다양한 가을이 맞이한다. 붉게 물든 나무, 이름은 모르지만 이 계절에만 볼 수 있을 야생화, 키가 큰 전나무 숲을 지나 역사의 평원에 닿는다. 정상에 닿기 1km 전 즈음부터 역사가 기웃거린다. 어느 순간 하늘이 탁 트이면서 이제껏 어느 산 정상에서도 보지 못했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어른 키를 훌쩍 넘는 역사 사이에 서면 계절의 품에 안긴 기분이 든다. 역사는 이른 아침이나 해 질 녘 즈음이 가장 멋지다. 길게 늘어진 해를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장관이다. 다만 해 질 녘에 간다면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해야 위험하지 않으니 역사의 풍경에 취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800평 정원이 있는 카페·레스토랑 착한가게 유스패밀리

유스패밀리는 3,800여 평의 정원에 3개 층으로 이루어진 카페이자 정선의 유일한 레스토랑이다. 유스패밀리는 단순한 음식점이라기보다 넓은 문화공간 같은 곳이다. 넓은 정원은 꽃과 나무로 잘 가꾸어진 유럽의 어느 화원을 옮겨 놓은 듯 조경이 훌륭하다. 멋진



바비큐파티를 할 수도 있고 고풍스런 분위기에서 커피를 마시기에도 좋다. 2015년부터 지인의 추천으로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시작한 유준식 대표는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을 작게라도 돌려드릴 수 있어 감사할 뿐이라고 말한다. ❀

여행정보

정선아리랑열차 A-train

운행정보 청량리~아우라지, 하루 1회 운행,
청량리 출발 8:20, 아우라지 출발 17:13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병방치스카이워크

주소 정선군 정선을 병방치길 224
문의 033-563-4100

민동산 역사

주소 정선군 민동산 일원
문의 033-591-9141(민동산역새꽃축제위원회)

정선아리랑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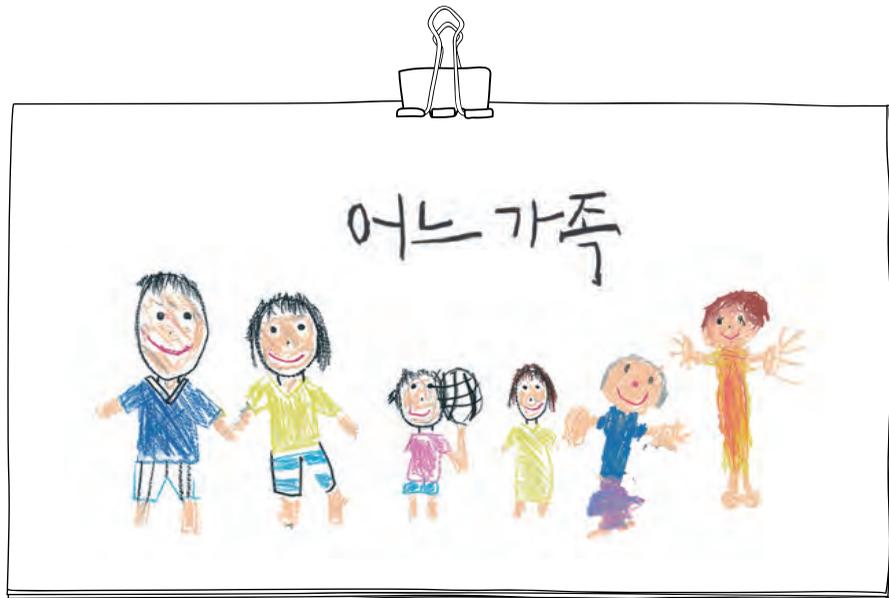
주소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58-1
운영시간 상설시장 9:00~20:00,
매주 토요일 휴무 / 오일장 매월 2, 7일

유스패밀리

주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93
문의 033-563-8501

진짜 가족보다 더 뜨겁고 끈끈한 《좀도둑 가족》 나눔은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든다

지난 5월 제71회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극장가에 고레에다 감독 열풍을 일으켰던 《어느 가족》이 《좀도둑 가족》(비체 刊)이라는 원작 제목을 달고 소설로 출간됐다. 영상에 미처 담지 못한 결정적 순간의 디테일을 담은 소설 《좀도둑 가족》을 통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만의 애뜻한 가족미학,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나눔의 소중함을 생각해 본다.



소설로 만나는 칸 영화제 수상 고레에다 감독의 가족미학

소설 《좀도둑 가족》은 좀 희한한 형태의 가족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연금을 부정 수급해 오다 체포된 어느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가족 이야기 외에도 복지사각지대, 노령화 문제, 계층 간의 갈등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비정상 가족을 통해 보여준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에서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가족의 모습은 '유사 가족'이다. 그의 영화에 등장하는 가족공동체는 혈연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 《좀도둑 가족》만 해도 여섯 명의 가족 구성원 중에 같은 핏줄은 없다. 도쿄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동북구역, 고층 맨션에 둘러싸인 오래된 단층 목조주택에 '어느 가족'이 살고 있다. 옆자리 파친코 구슬을 천연덕스럽게 훔치는 할머니



(하쓰에), 할머니 연금을 축내며 줌도독질을 일삼는 아버지(오사무), 세탁공장에서 손님 옷 주머니를 뒤지는 어머니(노부요), 가슴을 흔들며 연애를 파는 어머니의 이복동생(아키),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줌도독질을 배우는 아들(쇼타). 이렇게 다섯 식구였지만, 어느 겨울날 어린 소녀(유리)가 새 식구로 합류하며 도합 여섯 명의 가족이 완성된다. 피로 이어지지 않는 않지만 누구보다 애뜻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완벽한 타인일 뿐,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사회의 판정을 받게 된다.

피로 뭉친 가족보다 더 진한 유대감을 나누는 가짜 가족

하지만 이들은 피로 뭉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진한 애정으로 엮여 있다. 오사무를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지만 그를 친부 이상으로 따르는 쇼타나 친딸이 아닌 유리에게 깊은 모성애를 전하는 노부요의 모습은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끈끈함과 결속력을 보여준다. 이들은 자신 앞에 놓인 벽을 깨부수고 '타인'에서 '혈연'으로 하나가 되곤 한다.

혈연공동체인 가족 안에서의 부재와 상실, 결핍의 문제에 천착해 온 고레에다 감독은 《Zoom Zoom 가족》을 집필하면서 이 불완전한 관계의 모호성을 분명하게 돌려놓는다.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다거나 가족이니까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듣기기 싫다거나 가족이라서 모를 수 있다'는 해답의 실마리를 전해준다. 이것은 곧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반드시 가족일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새로운 물음을 갖게 한다.

“이제 아빠에서 아저씨로 돌아갈게”라는 오사무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쇼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길러준 아버지를 기억에서 지우고 혼자가 되는 일을 받아들이는 아이. 스스로 가족의 연대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쇼타는 온 세상의 가족이 붕괴되도 결코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

혈연·가족보다 더 시급한 것은 마음의 복지 수립

어쩌면 혈연, 가족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저마다의 자아를 위한 마음의 복지를 수립하는 일이다. 개개인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식주 해결 이상으로 정서의 안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마음의 복지는 어느 지점에서 완성될 수 있을까? 당연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형성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장 원활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가족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무관심, 가부장 중심, 남아선호사상, 가정 해체 등 슬한 가족문제 속에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그 많은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가족 간의 나눔이 아닐까 싶다. 다섯 살 유리가 새 옷을 사주는 생모보다 훔친 물건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낡은 움막집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오빠를 더 그리워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 ❀

세계기부지수 62위의 대한민국과 부동의 1위 미얀마... 나눔이 궁금하면 놀러오세요



기부 트렌드와 임팩트를 연구하는 사랑의열매 나눔연구소

지난 추석 연휴,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신문 칼럼이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었다. 사람들은 타인의 정체성보다 근황과 행위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곤란한 질문을 쉽게 던지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상대방이 평소와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으로 대응하라고 필자는 권한다. 가령 엄마가 “너 대체 결혼할 거니 말 거니”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라고 대답하고 거기에 대해 “애가 미쳤나”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라는 것이다.

나눔연구소에서 일하는 내게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이 나누는 편인가?” “최근 기부문화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칼럼에서처럼 ‘나눔이란 무엇인가?’라고 되묻는 건 참으로 응색하다. 대신 지난해 영국 자선지원재단의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서 세계 139개국 가

운데 우리나라는 62위이며, 전년도 75위에서 13계단 상승했다고 알려줄 것이다. 최빈국이며 독재국가인 미얀마 국민들이 4년째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도 덧붙여서.

그리고 2018년의 기부 트렌드는 1인 기부의 확대와 집단 기부의 하락, 자기만의 의미를 찾는 신중한 기부의 증가, 자선적 기부에서 사회적 기여로 변화, 새로운 기부 플랫폼의 등장이라 이야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눔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사랑의열매 나눔연구소 블로그(www.nanumresearch.or.kr)를 둘러보라고 권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런 유익한 정보를 얻었으니까.

9월 연구소 블로그 개설... 나눔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과도 소통

또다시 질문이 이어질지도 모른다. ‘나눔연구소 블로그란 무엇인가?’

사랑의열매 나눔연구소는 우리 사회 나눔문화 성숙을 위해 기부와 나눔, 사회 변화, 트렌드와 임팩트를 연구하는 나눔지식의 허브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이래 나눔문화의 활성화, 기부 환경 및 제도 분석, 배분사업 성과 평가 등 백수십여 건에 이르는 조사연구와 학술행사를 통해 전문지식은 물론 실천현장의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하지만 연구 성과와 정보 자료를 시민과 학생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는 성찰 속에 지난 9월 나눔연구소 블로그를 개설했다.

블로그는 ‘나눔연구, 나눔통계, 나눔이슈, 나눔칼럼, 행사&소식’ 5개 카테고리 and 나눔연구소와 구성원들을 소개하는 ‘ABOUT US’로 구성된다.

첫째, 나눔연구는 연구소가 수행한 주요 연구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나눔에 관해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코너다. 나눔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더 쉬운 언어로 소통하고 싶은 나눔연구소의 바람이 담긴 핵심적인 공간이다. 둘째, 나눔통계는 기부, 모금, 배분, 복지 등 나눔과 관련된 다양한 수치와 통계를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하는 코너다. 직관적이고 흥미로운 숫자 속에서 나눔의 가치와 변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나눔이슈는 기부, 나눔, 필란트로피라는 키워드로 살펴보는 흥미로운 사건과 연구, 논의들을 담고 있다. 쉽고 재미있게 참여하는 기부캠페인 소개부터 요즘 관심이 높은 통일 준비와 커뮤니티 케어, 나눔에 관한 신간서적 소개까지 풍성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넷째, 나눔칼럼은 나눔 전문가들의 통찰과 혜안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코너다. 나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우리 사회 나눔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하는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는 행사&소식에서는 세미나, 포럼, 학회 등 국내외 행사는 물론 소소한 현장의 소식을 담고 있다.

사랑의열매 나눔연구소 블로그는 사회복지, 비영리단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나눔에 관심 있는 누구나 편리하게 나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연구결과를 나누는 공간이다. 연구소 본연의 역할인 나눔 연구와 통계를 체계화, 대중화하고 나눔 관련 국내외 이슈를 공유하며, 나눔에 대한 열린 시각과 유익한 정보가 소통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본 블로그가 나눔에 관심 있는 시민과 연구자와 실천가가 모이고 논의하고 소통하는 나눔지식의 허브가 되기를 소망한다. ❀



원아·학부모·교사들의 나눔바자회 수익금 기부하고 사랑을 얻다



대전청사 다솜어린이집 이희수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자회 시작부터 진행과정, 마무리까지 아이들과 학부모, 어린이집 교사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나눔바자회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이들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 좋겠다며 나눔바자회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배우는 기회를 마련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내셨죠. 취지가 좋기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에서 바자회를 열려면 부모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물건이 있어야 바자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잘 안 돼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솜어린이집 부모님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습니다. 바자회를 축제처럼 만들어 연례행사로 만들어보자며 힘을 모아 주셨죠. 기획 단계에서부터 바자회 수익금은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 1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가져오기로 했죠. 또 아이들이 나눔에 직접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기획된 바자회는 다양한 루트로 수익을 냈습니다.

먼저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모아 준 물품들을 판매해 수익을 냈고요, 어린이집 교사들도 자신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 바자회에 참여했죠.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학습 코너를 마련했는데, 체험활동비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먹거리 코너를 아이와 부모님이 이용하면서 판매수익을 냈어요.

갤러리도 운영했습니다. 원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이를 관람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관람비를 내셨죠. 이렇게 모인 금액이 무려 14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바자회에서 판매하고 남은 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가져가 판매했는데 이 또한 40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를 대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습니다.

평소 다솜어린이집 아이들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1년에 4차례 방문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명절에 송편이며 음식도 가져다 드리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나 악기 연주도 들려주며 어른들을 만나고 있죠.

다솜어린이집 아이들과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며 나눔의 현장을 다니는 이유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만연한 이 시대에 나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을 시작으로 다솜어린이집은 매년 바자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

사랑의열매 기부자 26명 2018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

사랑의열매(회장 예종석)의 기부자 26명이 지난 10월 16일 KBS 신관에서 '2018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사랑의열매·보건복지부·KBS가 공동 주최하는 행

사로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모두 139명에게 나눔국민대상이 수여된다.

이 중 사랑의열매 기부자 수상은 모두 26건으로 ▲대통령 표창 2건(CJ제일제당(주), 양용만 우리농장 대표) ▲국무총리 표창 1건(대한유화(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건(KT홍보실 지속가능경영단



등 20건) ▲민간단체장상 3건((주)레이언스 등 3건)이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CJ제일제당은 지난 20년간 약 1,812억 원을 기부하며 취약계층 식품지원, 아프리카 아동의 식수 사업 지원 등 국내외 다양한 사

회공헌 활동을 실천했다. 양용만 우리농장 대표는 1994년부터 23년간 총 5억 원 가량을 기부하며 노인,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했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대한유화는 2002년 50만 원 기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6억 8,000만 원을 기부하며 봉사동아리 운영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서 왔다.



여성 고객기부 모임 W아너 리더들 여성 자활 시설 찾아가 기부금 전달

사랑의열매(회장 예종석)의 1억 원 이상 여성 고객기부자 모임인 W아너 소사이어티 리더들이 지난 10월 23일 여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W-ing을 찾아가 기부금을 전했다. W-ing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성 자활지원 시설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W아너 소사이어티 리더들은 전국 여성 아너 회원들 중에서도 각 지회별 대표를 선출해 구성되었다. 현재 회원은 모두 363명으로 기업인·전문직·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의 여성이 가입해 있다.



삼성카드 운영 링크비즈 서비스 사랑의열매 착한가게는 무료 이용 가능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가입 업소는 삼성카드에서 운영하는 '링크비즈(Link Biz)'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링크비즈란 고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가맹점 대상 마케팅 서비스다. 삼성카드 일반 가맹점주들은 유료로 이용하고 있지만 착한가게는 삼성카드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8월 23일 사랑의열매와 삼성카드가 착한가게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 것. 착한가게 기부자가 본인인증 절차를 1회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2-6262-3084



기업사회공헌 실무자 간담회 개최

서울 사랑의열매(회장 윤영석)는 지난 10월 16일 사랑의열매회관 별관 강의실에서 '기업사회공헌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와 서울 사랑의열매 주요 기업 사회공헌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아시아항공의 '아동 조식지원 사업', 이엑스티의 '희망의집 고치기 사업', 현대오트예버의 'IT공부방 및 N/W 전문가 양성교육 사업' 등 기업사회공헌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은평지역 어르신 목욕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 사랑의열매는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우리들새마을금고(이사장 염태강)와 지난 10월 11일 은평구청장실에서 차상위계층 어르신 목욕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은 은평구 내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차상위계층 어르신 약 260명을 선정해 올해 1,170만 원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4,6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1만 가구에 추석명절 위문금 5억 원 전달

경남 사랑의열매(회장 한철수)는 추석을 맞아 도내 소외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명절위문금 5억 원을 전달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18개 시군을 통해 선정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홀어르신·장애인 등 소외계층 1만 가구로, 현금으로 지원됐다. 한철수 경남 사랑의열매 회장은 "명절위문금은 도민의 이웃사랑 성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이 좀 더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증대사업 지원

경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10월 11일 '2018년 기획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증대사업'을 위한 배분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총 3개소에 커피로스팅기기, 제과제빵설비, 잠업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총 7,089만 375원이 지원됐다. 김용희 경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남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시 공무원 500여 명 착한일터 가입

안동시 공무원들이 '착한일터' 소액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경북 사랑의열매(회장 신현수)는 지난 10월 5일 안동시청에서 안동시 공무원의 착한일터 가입식과 현판을 다는 행사를 가졌다. 안동시청 본청과 풍산읍, 태화동 등 24개 읍·면·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500명이 참여해 연 3,400여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게 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복지사각지대의 온전한 해소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솔선해야 한다"고 참여 취지를 밝혔다.



의성군 공무원 700명도 착한일터 동참

의성군 공무원 700명이 사랑의열매 기부 프로그램인 '착한일터'에 참여한다. 이번 의성군의 착한일터 가입은 칠곡군과 경산시, 안동시에 이어 4번째 지자체 참여다. 이번 착한일터 가입에는 의성군청과 18개 읍면사무소의 공무원 83.3%가 참여해 나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연 5,400여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지자체 착한일터 중 최고 금액이다. 현재도 참여가 이어지고 있어 참여율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7년간 기부 버스킹한 김진배씨 '행복나눔공연' 700회 달성

경기 사랑의열매 기능형봉사단 김진배 단장((주)KFEM 대표)은 지난 10월 7일 성남시 소재 울동공원 야외무대에서 '행복나눔공연'을 가졌다. 2011년부터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앞 광장에서 시작한 버스킹은 10월 현재 700회를 맞았다. 버스킹을 통해 모인 성금도 1억 원에 도달했다. 이날 경기 사랑의열매(회장 이순선)는 700회 공연을 한 김진배 단장 및 이하 단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범죄피해 입은 가족 위해 착한가게 12곳 단체 가입

경기도 남양주 지역 가게 12곳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착한가게'에 단체로 가입했다. 지난 10월 17일 오전 남양주경찰서 2층 서장실에서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을 갖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가입식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희망나눔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한 것으로 조성된 기부금은 범죄피해를 입고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돕는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충남



2018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 개최

충남 사랑의열매(회장 이관형)는 충청남도와 함께 지난 10월 10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2018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올 한 해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포상식은 기부자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명의 개인과 10개 기관에 표창장이 전달됐다.



민관 협업적 치안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맺어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지난 10월 10일 충남지방경찰청, 충남 사랑의열매와 공동으로 '민관 협업적 치안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약자의 범죄 취약 지점에 고성능 블랙박스가 결합된 보안등을 설치해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 치안 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경찰청은 범죄 취약 지점 70개소를 선정하고, 한국중부발전은 스마트 보안등 설치예산 1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충북



이달수 동방의 빛 대표, 충북 나눔리더 8호 가입

이달수 동방의 빛 대표는 지난 10월 1일 충북 사랑의열매(회장 김관홍) 나눔리더 8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달수 대표는 "9호, 10호 등 충북에서 나눔리더 가입이 끊이지 않고 릴레이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123만 4,567원이라는 금액을 기부했다"며 "단순히 기부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2016년 2,200만 원 상당의 온풍기를 기부하기도 했다.



한우협회 충북지회, 3,000만 원 상당 한우 940kg 전달

전국한우협회 충북도지회는 지난 10월 12일 '2018 충북 한우랑 축산브랜드랑 축제'를 맞아 사랑의 한우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충북지회는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상당의 한우 940kg을 기탁했다. 전달된 한우는 충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계획이다.



목포 지역 저소득가구 위해 11억여 원 지원

전남 사랑의열매(회장 허정)는 목포 지역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 기관에 11억여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목포시청에서 전달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업,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전남 사랑의열매는 앞서 목포 지역에 1,291가구 생계비 지원, 999명 물품지원 등에 5억 7,876만 원을 지원했다.



중흥건설, 사랑의 쌀과 성금 전달

중흥건설은 10월 16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57번지에 문을 연 '목포 하당지구 중흥S-클래스 센텀뷰' 견본주택 개관식에서 축하화환 대신 받은 현금 261만 원과 쌀 35포를 전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중흥건설은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식 때마다 화환 대신 쌀을 받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해 왔다. 이날 기부된 기부금과 쌀은 목포 지역 저소득가구·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군산도시가스 착한ilter 가입

군산도시가스주식회사(대표 윤인식)는 지난 10월 18일 전북 사랑의열매에서 진행되는 나눔캠페인 착한ilter에 가입했다. 윤인식 군산도시가스 대표는 가입식에서 "그동안 받아온 지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아주 작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착한ilter 가입을 시작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눔에 기여하는 군산도시가스가 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나눔봉사단, 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전주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단장 김미선)은 지난 9월 진행한 자선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이번 바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눔봉사단에서 마련한 행사로 먹거리 판매 수익금 230만 원 전액을 기부했다. 김미선 단장은 "많은 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공적으로 바자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를 뜻깊은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대구



나눔으로 행복 충전 대구나눔대축제

대구 사랑의열매(회장 함인석)와 대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재모)는 지난 10월 13일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시민들의 나눔 참여 활성화를 위한 '2018 대구나눔대축제'를 개최했다. '나눔으로 행복한 착한 대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이번이 여덟 번째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나눔과 사회복지 관련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나눔을 실천한 유공자 20여 명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공인중개사협 대구지부 여성위 성금 200만 원 기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여성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 대구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바자회 수익금 및 회비 등으로 마련된 것으로 대구 내 소외된 이웃들의 의료비 및 생계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서정옥 대구지부 여성위원장은 "대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기회를 늘려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부산



'한가위, 온정 나눔' 지원금 6억 330만 원 전달

부산 사랑의열매(회장 신정택)는 지난 9월 17일 부산시청 접견실에서 '한가위, 온정(溫情) 나눔'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부산 시민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마련된 이번 '한가위, 온정(溫情) 나눔' 지원금은 총 6억 330만 원으로 홀어르신, 장애인가정 등 취약계층 1만 609가구와 쪽방 거주민 875가구에 각 5만 원씩 지원됐으며, 노숙인 무료급식소 총 8곳에 5,040명분의 식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BNK금융그룹 임원 36명 나눔리더 동시 가입

부산 사랑의열매는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빈대인 BNK부산은행 은행장 등 BNK금융그룹 계열사 임원 총 36명이 나눔리더에 동시에 가입해 인준패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36명이 나눔리더에 동시에 가입한 것은 금융권 최초이자 전국 최초다. 이와 별도로 BNK금융그룹은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로 매년 명절 온누리상품권 지원과 연말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울산종합일보》, 길거리농구대회 참가비 전액 기부

《울산종합일보》(대표이사 홍성조)는 지난 9월 19일 개최한 '2018 3on3 길거리 농구대회' 참가비 전액인 204만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회장 한시준)에 기부했다. 대회에는 초등부 18팀, 중등부 24팀, 고등부 24팀, 대학·일반부 45팀 등 총 111팀이 참가했다. 참가비는 초등부 무료, 중·고등부 2만 원, 대학·일반부 3만 원으로, 이번에 기부한 참가비는 울산 남구 내 한부모가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송철호 울산시장, 명예회장 위촉 및 1호 나눔리더 가입

울산 사랑의열매는 지난 10월 12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을 울산 사랑의열매 명예회장으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송 시장은 울산 최초 나눔리더로 가입해 그 의미를 더했다. 송철호 시장은 "시장에 취임한 후 나눔 실천의 뜻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명예회장이자 울산 1호 나눔리더에 가입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울산 시민과 소통하며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도시가스, 아동복지시설에 1,000만 원 전달

해양도시가스는 지난 9월 14일 추석을 맞아 광주 사랑의열매(회장 한상원)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노틀담형제의 집에 전달되어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데 쓰였다. 해양도시가스는 지난해 광주 사랑의열매에 1억 1,5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1억 1,4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장학금, 가스밸브 자동차단기·김장김치 지원 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국전력, 사회복지시설 이동 복지서비스 차량 3대 전달

한국전력은 지난 9월 18일 광주 사랑의열매에 사회복지시설 이동 복지 서비스 차량 3대를 전달했다. 한전의 지역사랑기금에서 마련된 차량은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 이룸주간보호센터 3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다. 전달된 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 병원진료, 긴급상황 시 이동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



SK인천석유화학, 1% 나눔 전달 및 협약식 체결

인천 사랑의열매(회장 정명환)는 지난 10월 8일 SK인천석유화학(대표이사 최남규)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구성원 1% 행복 나눔 전달 및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SK인천석유화학 구성원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을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들이 출연한 기금 2억 6,000만 원은 취약계층 어르신의 인공관절 치료와 저소득층 '사랑의 집수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만복짬뽕집, 인천 착한가게 1004호점으로

인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1,004호점이 탄생했다. 계양구에 위치한 중식당 만복짬뽕집(대표 백만준)은 지난 9월 27일 인천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하는 착한가게 1,004호점에 가입했다. 인천 착한가게는 2007년 1호점 탄생 이후, 2016년 105곳, 2017년 230곳, 2018년 170곳 등 매년 100여 곳이 꾸준히 가입해 드디어 1,000호점을 돌파했다.

대전



2018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열려

대전 사랑의열매(회장 안기호)는 지난 10월 4일 유성구에 위치한 라온컨벤션에서 '나눔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Honor Society'라는 주제로 '2018 대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8 대전 아너 경과보고, 나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신규 아너 회원 2명이 탄생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아너 모임 및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이승호 경북한의원 원장과 정태희 삼진정밀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연합모금 협약식

대전 사랑의열매는 지난 10월 5일 지역 사회복지단체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연합모금 협약식'을 진행했다. 연합모금은 대전 지역 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함으로, 대전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 사랑의열매는 기관의 모금활동을 지원하고 모금금액에 따라 매칭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



원주시니눔봉사단, 노숙자 위한 무료 급식 진행

강원 사랑의열매(회장 한만우) 원주시니눔봉사단은 지난 10월 9일 지역 내 실시일반노숙인센터에서 무료 점심 급식을 진행했다.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진행된 봉사활동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가 진행되어 외로운 마음에 따뜻한 정이 전달되었다. 250여 명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과 함께 의료, 미용, 사회복지 상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도내 최연소 아너 여지영씨 올해 또 장학금 기부

강원도 내 최연소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인 여지영 행운터부동산 컨설팅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원대학교를 찾아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10월 11일 강원 사랑의열매를 통해 전달된 장학금은 강원대학교 재학생 중 해외에서 온 학생 5명을 포함, 총 10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되었다. 여지영 대표는 모교인 유봉여고, 대안학교인 해밀학교 등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세종



아름상록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50만 원 기탁

지난 10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위치한 아름상록어린이집 원생들이 시장놀이를 통해 모은 성금 5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세종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상록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의 경제 교육과 병행해 고사리손으로 조성된 소중한 성금”이라며 “세종시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하게 전달되어 소외감을 해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강면사무소 공무원 착한일터에 가입

부강면사무소(면장 이상욱)는 지난 10월 18일 세종 사랑의열매가 진행하는 나눔캠페인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부강면사무소 공무원들은 부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사업에 착한일터로 참여해 부강면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모으는 데 앞장선다. 이상욱 부강면장은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와 복지문제 해결에 앞장서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태박물관, 개관 6주년 기념 바자회 수익금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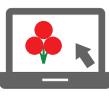
본태박물관(관장 김선희)은 지난 10월 14일 개관 6주년 기념 '제4회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바자회' 수익금 4,000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회장 고승화)에 기부했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본태박물관 제주 본관과 서울 본관의 아카데미 회원들이 땀유자차, 마늘장아찌, 전복젓갈 및 제주도 청정 먹거리와 가방, 스카프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다. 수익금은 전액 제주도 내 소아암 어린이를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행복+ 추석명절 지원 사업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가구를 위해 추석명절 지원금 3억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오경수 사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됨 없이 훈훈한 명절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기업으로서 나눔경영을 통해 도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p>문자기부 #9004 (한 통에 2천원)</p>	 <p>ARS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천원)</p>	 <p>온라인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p>	 <p>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p>
 <p>계좌기부 예금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p>		 <p>기념일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p>	 <p>이벤트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p>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광주 83호
김명군 (주)금호주택 대표이사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 저의 나눔이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가족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으면 좋겠다.”

부산 147호(부부 아너)
이금옥 여사



“어렵고 힘든 세월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남편과 나눔의 길을 함께 걷게 되어 뜻깊다.”

부산 148호
이오선 동아플레이팅(주) 대표이사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많았다. 하지만 시련을 견뎌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

인천 124호
정광모 의료법인 정강의료재단 이사장



“나눔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함께 나누는 기쁨,

함께 나누는 위로, 함께 즐기는 나눔이 더욱 가치 있다.”

제주 91호
정광자 (주)대원계전산업 대표



“나눔은 영원하다. 누군가 나누면 그 나눔을 통해 새로운 나눔이 생긴다. 나눔

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대전 67호
박경자 여사



“나눔이란 마중물이다. 나의 나눔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나눔이 시작될 길바란다.”

대전 68호
오형근 운하리조트(주) 에디버러 C.C 회장



“나눔이란 나의 기쁨이자 내가 할 일이다.”

대구 125호
류광열 (주)동진침장 대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 나의 나눔

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경북 86호
김수현 문경소방서 도청119안전센터 소방관



“소방관은 남을 돕는 직업이기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눔을 통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

고 싶었다.”

경북 87호
김무현 안동소방서 청송119안전센터 소방관



“평소 공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아버지를 보고 본받아, 우리 형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

경북 88호
추형경 (주)대한전력 대표이사



“경북 북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고객기부 문화가 침체되어 있다. 예천군은 기업이 많

이 없기에 나의 나눔이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중앙회 권영신 님, 김폴정 님,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강주명 국제가스연맹 회장

서울 사랑의열매 이재원 (주)원앤씨 회장, 구자영 님, 박성택 (주)산하 대표

경기 사랑의열매 박희중 (주)덕진 대표

광주 사랑의열매 김상철 더블유씨피컴퍼니(주) 대표, 김지현 님

전북 사랑의열매 김미영 님

강원 사랑의열매 박형욱 세명치과 원장

부산 사랑의열매 익명



〈사랑의열매〉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난호 독자의견

프로레슬러 이왕표님의 별세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장기 기증 유서를 남길 만큼 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몸소 실천하신 고인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챔피언'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림 · 경기도 의정부시

'착한일터'에 소개된 현대오토에버 기사를 보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감동했습니다. IT 공부방과 장애인 앱 개발로 소외 이웃의 정보 격차를 해소시키는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도형 · 서울시 영등포구

《사랑의열매》를 보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돕는 훈훈한 이야기에 가슴까지 따뜻함이 전해 옵니다. 타인을 위해 땀 흘리며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도 기부 의미를 되새기며 작은 나눔이라도 꾀욱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민정 · 경기도 부천시

참여방법

- * 이메일(E-mail: cckpr@chest.or.kr)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읽은 후 소감이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 * 나눔에 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가족, 친구 등에게 선물한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 기사 및 편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 * 보내실 때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독자 참여 사은품

독자의견(3명)에 선정된 분에게는 내용 소개와 함께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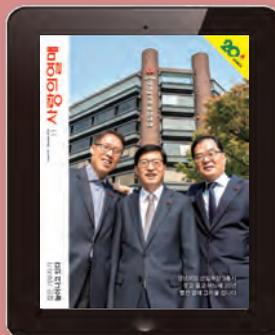


텀블러

우산

열매 배지, 열매밴드

USB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매거진은 '사랑의열매' PC·모바일 페이지에서 e-book(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하단의 '홍보자료'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st.or.kr

48 SINCE 1970
YEARS ANNIVERSARY

힘든 길도 꽃길이 되도록

BNK경남은행이 함께합니다

금융의 규모가 커질수록 웃는 이는 더 많아져야합니다
은행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나눔은 더 깊어져야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 손길이 필요한 곳, 언제, 어디든
BNK경남은행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스무 살 생일



사랑의열매는 나눔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생일 케이크 위에
초가 하나씩 늘 때마다 나눔도 함께 자랐습니다. 스무 살 생일을 맞은 사랑의열매,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위해 또다시 뛰겠습니다.

